

의대증원 반발 확산...전국 의대생 단체행동 움직임

전남대 등 40개 대학 '동맹휴학' 결의...참여 여부 묻는 설문조사

광주·전남 의사들 국힘 시당 앞 쫓겨대회...시민들 반응은 싸늘

전남대 의과대학생들이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대해 반발해 '동맹휴학'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소속 광주·전남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광주시 서구 국민회의 광주시당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탄 쫓겨대회'를 열었다.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까지 사실상 단체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대 의대 학생회는 15일 오전부터 16일 낮 12시까지 전남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설문조사가 진행중이지만 동맹휴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의견이 높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 의대생들의 입장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 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 학생협회의 지난 13일 임시총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남대 의대 포함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만장일치로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임시총회에서는 40개 단위 의대 대표들은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림대 의대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설문조사를 거쳐 동맹휴학을 결정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목상한 의료 개혁이 현실이 된다면 의료 선진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15일 의대생의 동맹 휴학 결의에 대비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40개 의대에 보냈다.

교육부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동맹휴학 결의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관계법령과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단체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0%가 넘는 찬성의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의사들도 "의대 정원 증원은 공감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은 무리한 증원이다"는 입장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교육기간에만 10년이 걸리지만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지 않은 증원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수도권 쏠림 등 의료업계의 고질적 문제의 원인조차 해결하지 않고 단순 증원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사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고 나서고 의과대학



15일 광주시의사회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고민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중석(64)씨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찬성한다. 의사들의 수가 늘어나면 취약한 필수

료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들도 증가할 것이다"며 "고령화 때문에 병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의대 정원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원 유하나(여·29)씨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

뿐 아니라 지역내 의대생들도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지역 내 의료공백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2000명 증원도 그다지 많은 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사건브로커 성씨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원 선고

광주지법 공범 브로커 징역 2년

기밀사안인 경·검의 수사 정보를 빼내 코인 사기 피의자에게 알려준 '사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브로커 A(6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4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코인 사기범 B(44)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성씨는 재판초기부터 공소사실 중 수수 액수를 부인해 왔다. 일부 금액은 B씨에게 돌려줬고, B씨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씨가 B씨에게 돌려준 돈은 반환이 아니라 별도로 대여한 돈으로 봤다. 또 B씨의 변호사 선임비의 경우 사전에 B씨에게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힌 것이 아닌 범행 경비로 쓴 것

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징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추징금 액수를 줄이려고 했던 성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성씨는 인사수사 청탁 비위로 추가로 기소돼 다른 1심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북 양식장 어선 전복...2명 사망·1명 실종

전북 양식장에서 출하 작업중이던 어선이 전북 태선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15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해남군 송지면 인근 바다에서 적복출하 작업어선 A호(6t급, 선원6명)이 작업 후 복귀 도중 뒤집혔다.

승선해 있는 6명의 선원중 30대 선장 B씨와 한국인 여성선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한국인 여성 선원 1명은 실종돼 해경이 구조·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선원 3명은 모두 외국인으로 구조됐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 육군 땅굴 초소에서 해양경계감시를 하던 군인들이 뒤집힌 배를 확인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전북 양식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게 일어 선박이 뒤집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인명 수색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식사준비 제대로 안했다며 동료선원 폭행치사

상해치사죄 적용 징역 7년 선고

평소 식사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동료에게 불만을 품고 폭행해 숨지게 했다면 살인죄가 될까.

법원은 범행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영광군의 선원 숙소에서

피해자 B(62)씨와 음식과 술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다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물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자비로 구입한 닭 한마리 등을 B씨에게 건네며 닭죽을 부탁했으나 B씨가 닭을 내놓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죄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해치사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기념재단, 5·18 왜곡 혐의 지만원씨 고발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인실' 등 5·18 왜곡·편향 주장을 유포하고 관련 서적까지 출판한 극우 논객 지만원(83)씨를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15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지씨가 지난해 1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징역 2년의 대법원 선고를 받고,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책을 발행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단은 "지씨가 펴낸 책에는 '5·18은 북한의 김

일성이 특수군 600명을 투입해 광주 학생·시민 시위대로 위장해 하고 무장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시켰다가 우리 군대에게 격퇴당한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이 담겼다. 허위 사실이자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5·18에 대한 허위사실이 생산,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